



##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은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19년도 연간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사상 최대실적인 1천 7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1천533억원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2천324억원으로 2018년(2천61억원) 대비 12.8%포인트 증가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건전성 관리로 고정이하여신비율 0.49%와 연체 비율 0.42%를 유지해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BIS)은 16.02%,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32%로 자본 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광주은행의 이같은 실적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철저한 고객밀착 경영과 현장 중심 경영의 실천, 광주·전남지역 고도화 전략과 수도권 신시장 개척 전략이 주요한 데 따른 것이다.

송중욱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 말까지 광주지역 여·수신 시장점유율 35%, 전남지역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지역민과의 동행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문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용금융센터는 지역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 동반자가 되겠다는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그대로 녹였다. 전문 컨설턴트를 포함해 총 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는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로 운영된다. 지금, 이 순간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지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고대하며 지역경제에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활발한 금융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



광주은행은 올해 첫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3천억원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 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1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의 발 빠른 지원을 위해 움직였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글로벌

모터스 3대 주주로서 260억원을 출자했다. 또 59년 만에 목포시 금고와 33년 만에 광산구 금고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역대 공공금고 신규 유치와 수성을 이뤄냈다.

광주은행은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역의 공공자금을 지역경제 곳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지역민에게 고객 중심경영을 펼쳐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모든 영업점에 고객 제공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배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했다. 또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은행장이 직접 나서 어린이 시장투어 행사를 열었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은누리상품권 및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총 9억6천400만원을 구매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밀착경영과 고객 중심경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송 은행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의 열정을 가득 채워 새로운 해, 첫 달을 보냈다. 지역민과 웃고 지역경제에 날개를 달아 올리며 올 한해 눈부신 활약을 보여줄 광주은행은 2020년 비상을 꿈꾸고 있다. ●

